

17~18세기 재산상속의 방식과 출계자의 위치

고 민 정*

- I. 서론
- II. 재산상속의 일반적 경향
- III. 출계자와 딸의 상속 비율이 같은 유형
- IV. 출계자의 상속 비율이 딸보다 높은 유형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7~18세기에 작성된 분재기를 토대로 생가에서 출계한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출계한 아들과 딸의 상속 비율이 같은 유형과 출계한 아들의 상속 비율이 딸보다 높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출계한 아들과 딸의 상속 비율이 같은 유형은 친족 내에서 출계한 아들과 출가한 딸의 지위가 같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출계한 아들과 출가한 딸은 친부모의 제사를 봉행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분을 똑같이 책정하였다.

둘째, 출계한 아들의 상속 비율이 딸보다 높은 유형은 딸보다 아들의 존재를 더욱 중요시하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즉, 신분의 우위, 출계의

*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koh71@kangwon.ac.kr

여부와 관계없이 아들이라는 성별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딸보다 많은 상속분을 책정하였다.

이처럼 출계한 아들에게 재산을 배분한 유형들은 출계하기 전에 이미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돈독히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친족 내에서 아직 출계한 아들의 위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과도기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주제어

재산상속, 입후, 차등, 여성, 분재기

I. 서론

17세기 이후의 조선 사회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부계 중심의 친족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적장자 중심의 가계 승계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立後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입후는 원래 후사를 세운다는 뜻을 지녔으나, 『경국대전』 「입후」조에서 아들이 없는 사람이 가계 승계를 목적으로 부계친 조카를 데려와 아들로 삼는다는 의미로 정의된 후, 형망제급, 첩자계승, 적손승중 등과 같이 가계를 잇기 위한 차선택의 하나로 이해되었다.

입후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 친족제의 성격을 규명한다는 목적 아래 인류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고,¹⁾ 역사학 분야에서도 사회사적 관점에서 입후제의 성립과 운용,²⁾ 입후의 확산 과정,³⁾ 계후자를 선택하는 방식,⁴⁾ 문중 결성 후에 나타난 입후 주체의 변화,⁵⁾ 개별 가문의 입후 양상,⁶⁾ 입후 때문에 발생한 친족 간의 분쟁,⁷⁾ 다른 계승방식과의 관련성⁸⁾ 등에 관한 성과들이 집적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연

-
- 1) 김두헌, 「養子制」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262~290쪽; 최재석, 「養子制와 親族」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1983, 588~669쪽.
 - 2) 박경, 「입후법의 제정과 15~16세기의 입후 장려 정책」 『조선 전기 입양과 가족제도』, 해안, 2011, 144~176쪽; 고민정,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66~144쪽.
 - 3)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201~232쪽.
 - 4) 한상우, 「조선후기 양반층의 立後 양상과 전략적 繼子 선택」,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287~325쪽.
 - 5) 고민정, 「立後文記로 보는 18~19세기의 입후 양상」, 『태동고전연구』 51, 태동고전연구소, 2023, 263~289쪽.
 - 6) 허원영, 「한말 한 종가의 立後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 151~186쪽.
 - 7) 박경, 「罷繼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 『장서각』 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78~111쪽; 고민정,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사학연구』 130, 한국사학회, 2018, 137~172쪽.
 - 8) 고민정,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 『정신문화연구』 39-3,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들은 특정 자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연대기 관찬 자료, 예조에서 작성한 계후등록과 계후입안, 지방 관아에서 작성한 호적 자료, 민간에서 작성하거나 편찬한 각종 고문헌을 다양하게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입후는 17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 나타난 독특한 사회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는 대체로 입후가 사회 전반으로 널리 확산하는 양상과 입후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사회문제를 고찰하는 데 주력하면서, 입후로 인해 변화된 친족 관계 속에 가족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띠었는지, 또 가족의 경제적 토대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재산상속에서 출계자(계후자)는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 하지만 입후는 다른 계승방식과 달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삼촌과 조카의 관계로 바꾸는 친족 관계의 변형을 전제한 계승방식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적지 않은 변화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른 가문의 가계를 잇기 위해 친아들의 출계가 이루어진 후 생가에서 행해진 정식분재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생가의 부모와 출계자, 그리고 다른 자녀들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산상속은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주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재산상속의 원리와 기준은 당시의 친족 관념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통해 생가에서 출계한 아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II장에서는 조선시대 재산상속의 주요 흐름 속에서 17세기 차등 상속이 등장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17~18세기 생가의 정식분재 양상을 두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그다음 III장에서는 출계한 아들과 출가한 딸의 상속 비율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 17세기 옥구의 제주 고씨가와 18세기 밀양의 창녕조씨가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6, 175~211쪽; 고민정, 「17-18세기 兄亡弟及의 사례를 통해 본 가계계승의 실현 과정」, 『사학연구』 140, 한국사학회, 2020, 255~288쪽.

IV장에서는 출계한 아들의 상속 비율이 출가한 딸보다 높은 유형에 속하는 17세기 예안의 광산김씨가와 18세기 영해의 영양남씨가의 사례를 분석한 다음, 이러한 사례와 유형이 나타나게 된 과도기적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재산상속의 일반적 경향

조선 초기에 행해진 재산상속에 관한 논의는 노비의 소유를 둘러싸고 생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태조대에는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여 壓良爲賤 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노비 상속 분쟁을 전담하도록 하였고⁹⁾ 태종대에는 이 같은 사례들을 토대로 노비 상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서 적첩 자녀의 노비 상속 비율, 자녀가 없는 부부가 소유한 노비의 상속방식, 收養子에게 노비를 상속하는 방법과 비율 등에 관한 지침을 「奴婢決折節目」 20개조로 정리하였다.¹⁰⁾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시 몇 차례의 논의를 거친 뒤 『경국대전』 「私賤」조에 수록되면서 재산상속제의 원칙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경국대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재산상속의 규정은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자녀의 신분적 위치,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노비와 전답의 상속분에 차등을 두었다는 특징이 있다. 즉, 기본적으로嫡子女, 良妾子女, 賤妾子女로 구성된 가족을 상정하고 자녀의 신분에 따라 적자녀의 몫을 1, 양첩자녀의 몫을 1/7, 천첩자녀의 몫을 1/10로 규정한 뒤 해당 비율에 맞게 각자의 몫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조상의 제사를 책임지는 승중자에게는 加給을 규정하였는데 이 역시도 승중자의 신분에 따라 그 비율에 차등을 두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가족 구성을 ①적자녀가 없는 자, ②적녀만 있는

9) 『太祖實錄』 6卷 太祖 3年(1394) 8月 2日 己巳.

10) 『太宗實錄』 10卷, 太宗 5年(1405) 9月 6日 戊戌.

자, ③자녀가 없는 嫡母, ④적녀만 있는 적모, ⑤적자녀와 양첩자녀가 없는 자, ⑥적녀와 양첩녀만 있는 자, ⑦양첩녀만 있는 자, ⑧자녀가 없는 前母 및 繼母, ⑨자녀가 있는 전모 및 계모, ⑩자녀가 없는 養父母, ⑪적자녀가 있는 양부모로 나누고 각 상황에 따른 상속분의 비율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비록 신분적 차이는 있을지라 적자녀는 적자녀대로, 양첩자녀는 양첩자녀대로, 천첩자녀는 천첩자녀대로 똑같은 상속분을 받게 되므로 결국 平分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녀에게 동등한 상속분을 배분한다는 의미의 평분은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서 고려시대부터 행해져 온 관행으로 이해되었고,¹¹⁾ 이러한 관행은 조선 초기에 작성된 분재기의 분석을 바탕으로 『경국대전』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행해져 온 방식으로 이해되었다.¹²⁾ 더욱이 국가는 노비로 인한 상속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상속분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中分을 시행하여 강제 조정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¹³⁾ 따라서 평분 또는 중분 등으로 표현되는 자녀 간 균분상속은 고려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상속 관행이었을 뿐 아니라, 상속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자녀 간 균분상속은 17세기에 이르러 딸보다 아들을 우대하는 차등 상속으로 바뀌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모습은 각 가문에서 정식분재할 때 작성한 분재기를 통해서 그 구체적 변화를 살필 수 있는데, 개별 가문의 상황에 따라 그 시기와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영해를 중심으로 세거해온 新安朱氏家에서는 1623년(인조 1)부터 아들과 딸을 구분하여 아들에게 딸의 몫에 약 4배에 해당하는 전답을 상속해 주었고,¹⁴⁾ 부안에서 세거해

11) 김용만, 「朝鮮時代 均分相續制에 關한 一研究」, 『대구사학』 23, 대구사학회, 1983, 4~6쪽.

12)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53~60쪽.

13) 박진훈, 「麗末鮮初 奴婢政策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77~184쪽.

14) 김순한 등, 「16~18세기 寧海 新安朱氏 朱雲가문의 상속 및 봉사 의식과 그 변화」,

은 扶安金氏家에서는 1669년(현종 10)부터 아들과 딸의 상속분을 3:1의 비율로 차등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¹⁵⁾ 광주에서 세거한 全義李氏家에서는 1697년(숙종 23)부터 아들에게 딸의 몫에 약 2배에 이르는 노비와 전답을 상속해 주었다.¹⁶⁾ 따라서 자녀 간 차등 상속은 17세기부터 이루어진 점진적 변화 속에 차츰 대세로 자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녀를 구분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상속 관행의 출현은 성리학적 의례의 실천에 관심이 고조되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은 건국 초부터 『주자가례』에 의거한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하면서 冠婚喪祭의 실천을 강조하였으며,¹⁷⁾ 그중에서도 상장례 및 제례에서 火葬의 금지, 三年喪과 家廟制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¹⁸⁾ 더욱이 16세기에 이르면 『주자가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일상에서의 제례 실천을 위한 제례서의 편찬이 활발하였고,¹⁹⁾ 정식분재에서도 봉사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책정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⁰⁾ 그리고 이 같은 영향 아래 봉사를 주재할 아들을 딸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17세기부터 상속분에 차등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내에서 아들의 존재를 중시하는 관념은 입후가 사회적으로 널리 유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문과방목』에 기록

『민족문화논총』 6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49쪽.

15) 전경목, 「分財記를 통해서 본 分財와 奉祀 慣行의 변천」, 『고문서연구』 22, 2003, 한국고문서학회, 258쪽.

16) 김경숙, 「조선후기 光州 全義李氏家の 재산상속」, 『사학연구』 99, 2010, 한국사학회, 121~124쪽.

17) 정경희, 「朝鮮前期 禮制·禮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48쪽.

18) 배상현, 「『朱子家禮』와 그 朝鮮에서의 行用過程」, 『동방학지』 7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1, 242~248쪽; 김운정, 「조선중기 가묘제와 여성제례의 변화」, 『국학연구』 14, 한국국학진흥원, 2009, 457~461쪽.

19)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67~69쪽.

20) 문숙자, 앞의 책, 2004, 110~114쪽.

된 과거급제자의 인적 정보를 통해 입후의 증감 추세를 살펴보면 16세기의 급제자 715명 중에서 16명이, 17세기의 급제자 1,039명 중에서 66명이, 18세기의 급제자 1,304명 중에서 104명이 계후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16세기에는 2.2%에 불과하던 입후 비율이 17세기에 6.3%, 18세기에 7.9%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마방목』에 기록된 소과 입격자의 인적 정보를 토대로 입후의 증감을 살펴도 16세기에는 전체 입격자의 2%, 17세기에는 5%, 18세기에는 11%가 계후자에 해당하므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¹⁾

그런데 입후는 부계친 내에서 한쪽이 아들을 내보내면 다른 한쪽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필연적으로 친족 관계의 변화를 수반하며 재산상속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입후로써 아들 자격을 새롭게 획득한 계후자는 재산상속에서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았을 것이며, 다른 가문으로 출계하여 아들의 자격을 잃게 된 출계자는 재산상속에서도 그 권리를 잃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아들이 출계한 후 행해진 정식분재에서 출계한 아들도 역시 상속자로 포함되어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았던 사례들이 확인된다.

다음에 제시한 <표 1>은 재산상속 과정에서 출계한 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 구체적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현존하는 1천여 건의 분재기 가운데 출계한 아들이 포함된 재산상속의 사례만 별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²²⁾

21) 정공식, 「전기자료에 나타난 16세기 양자의 특징」, 『국제지역연구』 12-4,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09쪽.

22) 이제까지 현존하는 분재기의 전체 규모는 대략 540건으로 알려져 있으나(문숙자, 앞의 책, 경인문화사, 2004, 32쪽). 이러한 계량적 지표가 만들어진 후에도 고문서 조사는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DB로 공개된 고문서와 公刊된 각종 자료집과 도록 등을 참고하면 약 1,020건의 분재기가 현존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상세히 논할 계획이다.

<표 1> 17~18세기 출계자가 포함된 재산상속

번호	연도	재주	상속방식	전답 분재량 비교	세거가문
1	1663년	高傳選 妻 鄭氏	차등분급	아들 > 딸 ÷ 출계자	옥구 제주고씨
2	1669년 ²³⁾	金光澍 妻 權氏	차등분급	아들 > 출계자 > 딸	예안 광산김씨
3	1722년	曹世周	차등분급	장자 > 차자 > 딸 ÷ 출계자	안동 창녕조씨
4	1737년	南國蓍 妻 柳氏	차등분급	아들 > 출계자 > 딸	영해 영양남씨

위의 사례들은 대체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하는 분급의 형식에 따른 정식분재가 이루어졌으며, 17세기 이후로 유행하기 시작한 자녀 간 차등 상속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출계한 아들도 상속자로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들과 딸, 그리고 출계한 아들의 전답 상속분을 비교해보면 예외 없이 아들의 상속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²⁴⁾ 그러나 딸과 출계한 아들의 상속분을 비교해보면 딸의 상속분과 출계한 아들의 상속분이 같은 경우와 출계한 아들의 상속분이 딸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경우가 확인되며, 딸의 상속분이 출계한 아들보다 많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같은 사례들은 첫째, 딸과 출계한 아들의 몫이 비교적 같은 유형과 둘째, 출계한 아들의 몫이 딸보다 많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23) 金光澍 妻 權氏 分給文記는 문서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작성 연도를 기록한 부분이 훼손되어 글자를 판독하기 어렵다. 다만, 문서의 작성 주체인 김광주의 처 권씨가 1583년에 출생하여 1669년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므로 편의상 사망 시기를 작성 시기로 추정하였다(광산김씨대종중, 『光山金氏平章大譜』, 2016, 광산김씨족보편찬회, 1326쪽).

24) 전근대 사회에서 상속재산은 노비와 전답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보다는 전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므로 상속분을 비교할 때는 전답에 기준을 두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전답은 卜束과 斗落 등의 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하므로 각각의 수량과 비율을 산출한 뒤 다시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렇듯 조선 초기 재산상속제는 고려 때부터 행해져 온 자녀 간 균분 상속의 관행 위에 성리학적 위계질서를 고려하여 가족 내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6세기까지도 자녀 간 균분상속은 상속의 주요 원칙이었으나 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딸(사위, 외손)보다는 아들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딸보다 아들을 우대하는 차등 상속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아들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념은 아들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아들을 데려오는 입후의 유행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재산상속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아들과 딸만이 아니라 출계한 아들의 상속분까지 고려하는 분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Ⅲ. 출계자와 딸의 상속 비율이 같은 유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에는 가족의 유지와 존속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상속과 가계 계승에 확연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재산상속에서는 아들 중심의 상속체제를 구축하려 노력하면서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는 차등상속제가 유행하였으며, 가계계승에서는 적장자 중심의 계승체제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들을 후사로 삼는 입후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다른 집안의 후사를 위해 출계한 친아들을 위한 재산상속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출계한 아들과 출가한 딸에게 비슷한 상속분을 주었던 사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전라도 옥구(현 군산)를 중심으로 세거하였던 제주 고씨의 경우이다. 이들은 고려 중반 문하시중을 역임했던 高惇謙의 후손들인데, 그가 옥구로 유배되었던 일을 계기로 자손들이 옥구를 비롯한 임피와 부안 등지에 세거하게 되었다.²⁵⁾ 그 가운데 부안에서 주로 세거하였던 호성공신 高曦(1560~1615)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同生弟

高睨의 둘째 아들인 高弘建(1580~1655)을 입후하였고, 고흥건도 역시 첫째 부인 함양박씨, 둘째 부인 기계유씨로부터 후사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해 1648년(인조 26) 八寸弟 高傳選의 둘째 아들 高斗煌(1628~1713)을 입후하였다.²⁶⁾

그리고 고두황이 출계하고 16년이 지난 1663년(현종 4) 생모 동래정씨에 의해 생가의 정식분재가 이루어졌다. 동래정씨는 4남 1녀의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기에 앞서, 家翁의 유언에 따라 자녀에게 똑같은 몫을 나누어주는 균분상속을 시행하려 하였지만, 재산의 전체 규모가 적은 편에 속할 뿐 아니라 자녀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어 차등 분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아들 高用元·다섯째 아들 高用汝, 그리고 출계한 둘째 아들 고두황·후사 없이 이미 사망한 셋째 아들 高用升·다른 지역으로 출가한 넷째 딸 제주고씨를 차등하는 분재가 이루어졌다.²⁷⁾

다음 <표 2>는 1663년(현종 4) 옥구의 제주고씨가에서 행해진 정식 분재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진 상속분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 1663년 옥구 제주고씨의 정식분재

번호	상속자	노비 분재량	전답 분재량	비고
1	아들 高用元	2口	373.8 卜	
2	아들 高斗煌	1口	90.6 卜	出繼
3	아들 高用升	2口	93.5 卜	無後身死
4	딸(사위: 李文彬)	2口	112.4 卜	外方 거주
5	아들 高用汝	4口	389.9 卜	
소계		11口	1,060.2 卜	

25) 김두현, 「제주 고씨의 옥구 입거와 이후의 거주지 이동」, 『전북사학』 36, 전북사학회, 2010, 40~53쪽.

26) 고민정, 「조선 후기 사족 家系의 계승방식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55, 한국고문서학회, 197~198쪽.

27) 1663년 高傳選 妻 鄭氏 分給文記.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첫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에게는 전체 전답의 약 35~36%에 이르는 상속분이 각각 주어졌고, 출계한 아들과 후사 없이 사망한 셋째 아들, 출가한 딸에게는 전체 전답의 약 9~10%에 해당하는 상속분이 각각 주어졌다. 이에 따라 출계한 아들·사망한 아들·출가한 딸은 다른 아들의 몫에 약 1/3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출계자 고두황은 출계하고도 생가의 정식분재에서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밖에 여러 이유로 별급도 함께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1648년(인조 26) 고두황이 광산김씨와 혼인하게 되었을 때 생부 고부선은 그 신부가 아름답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서, 의리로 보면 타인의 며느리가 되지만 정리로 보면 나의 며느리가 되므로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노비 1구와 전답 30.1부를 고두황의 처에게 증여하였다.²⁸⁾ 또한 1676년(숙종 2) 고두황이 무과에 급제했을 때도 이를 크게 기뻐한 생모 동래정씨는 노비 1구와 전답 65.2부를 증여하였다.²⁹⁾

따라서 옥구의 제주고씨가 사례는 아들이 비록 출계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형성되었던 부자 관계가 계속 지속되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혼인이나 과거급제와 같이 친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가에서는 별급의 행위를 통해 부모로서의 각별한 정을 표시하였고, 정식분재할 때도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자로 포함하여 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하게 하면서,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사례는 경상도 밀양에 세거하였던 창녕조씨가의 경우이다. 이들은 퇴계 이황의 문인이며 한강 정구, 율곡 이이, 고봉 기대승 등과 폭넓게 교류하였던 聚遠堂 曹光益(1537~1578)이 이조참의 朴弘美의 사위가 된 후 처가가 있던 밀양 오방동으로 이거하게

28) 1648년 高傳選 別給文記.

29) 1676년 高斗煌 紅牌; 1676년 高傳選 妻 鄭氏 別給文記.

되면서 그 일대에 세거하게 되었다.³⁰⁾ 이들의 인적 계승 관계를 살펴보면 조광익에서 장자 曹以復(1563~1602)으로 이어진 가계는 조이복에게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단절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조이복의 후처 의성김씨가 창원에 거주하던 가옹의 四寸弟 曹以煥의 둘째 아들 曹輶(1603~?)을 입후함으로써 지속될 수 있었다. 그 후로 조은이 네 명의 아들을 두었고³¹⁾ 조은의 장자 曹景昌도 세 명의 아들을 둬으로써 가계를 잇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조은의 손자 중에서 曹任周가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으므로 四寸兄 曹世周(1648~1724)가 그의 넷째 아들 曹夏珩을 출계시켜 가계를 잇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1722년(경종 2) 생부 조세주가 자녀들에게 정식분재할 때 출계한 아들을 포함한 4남 1녀의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배분된 상속분을 살펴보면 첫째 아들 曹夏琳에게 약 42%, 둘째 아들 曹夏璠과 셋째 아들 曹夏珪에게는 약 25~26%, 출가한 딸과 출계한 아들에게는 약 3~4%씩을 나누어주었다.³²⁾

이처럼 조세주는 아들 중에서도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여 장자를 더 우대하는 방식으로 분재하였다. 즉, 차자 이하의 아들에게는 장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주었고, 출가한 딸과 출계한 아들에게는 장자에게 주어진 상속분의 약 1/10, 차자 이하의 아들에게 주어진 상속분의 약 1/6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출가한 딸과 출계한 아들에게 분배된 재산을 모두 합하여도 전체 재산의 10% 미만에 해당하므로 장남과 차남의 상속분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편에 속한다.

다음 <표 3>은 1722년(경종 2) 밀양의 창녕조씨가에서 행해진 정식 분재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진 상속분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30) 정수환, 「조선후기 분재와 가정경영 그리고 지역사회」,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781~782쪽.

31) 1651년 曹輶 妻 宋氏 分給都文記.

32) 1722년 曹世周 分給文記.

<표 3> 1722년 밀양 창녕조씨가의 정식분재

번호	상속자	노비 분재량	전답 분재량	비고
1	아들 曹夏琳	10口	91斗落	
2	딸(사위: 孫處大)	7口	7斗落	
3	아들 曹夏璠	10口	56斗落	
4	아들 曹夏珪	9口	54斗落	
5	아들 曹夏珩	3口	9斗落	出繼
소계		39口	217斗落	

이처럼 18세기 전반 밀양 창녕조씨가에서는 첫째 아들과 다른 아들들을 구별하고 또 다른 아들들과 출가한 딸·출계한 아들을 구별하는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녀를 차등 상속하던 관행이 장자 위주의 관행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기보다 그전의 상속 과정과 연속성을 띠면서 이루어지므로 그간에 행해져 온 밀양 창녕조씨가의 상속방식을 함께 살펴보면서 전후 맥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1646년(인조 24) 조이복의 처 의성김씨는 가옹이 사망한 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인 계후자 조은 외에 재산을 물려줄 만큼 가까운 내외 친족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식분재 당시 모든 재산을 계후자 조은에게 전급함으로써 조은은 밀양 오방동을 비롯하여 진주·김해 등에 소재한 노비와 전답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다음 1651년(효종 2) 조은의 처 청주송씨가 정식분재할 때는 4남 2녀의 자녀에게 평균 분깃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였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자녀 간 균분상속의 원칙에 따른 재산상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³³⁾

그러나 1688년(숙종 14) 조정창이 3남 3녀의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할 때부터는 전답의 면적이나 수확량뿐 아니라 그 소재 지역까지 고려

33) 1651년 曹輓 妻 宋氏 分祿都文記.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장자 조세주에게는 조치당 조광익이 입향한 후부터 계속해서 세거해온 밀양 오방동 주변의 전답을 집중적으로 나누어주었고 나머지 아들과 딸들에게는 김해, 영산, 진주 등지에 소재한 전답을 나누어주었다.³⁴⁾ 따라서 밀양 창녕조씨가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장자에게 종가 주변의 전답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종가의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밀양 창녕조씨의 정식분재 관행이 변하는 추이를 살펴보면 17세기 중반까지는 자녀 간 균분상속이 이루어지다가, 17세기 후반부터는 장남과 차남을 구분하는 제자 간 차등 상속, 즉 장자 우대상속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7세기 후반의 정식분재에서는 밀양 오방동 주변의 전답은 주로 장자에게 상속하였고 기타 주변의 전답은 나머지 자녀에게 상속하는 양상도 아울러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18세기 전반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장자와 차자 이하의 아들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출계한 아들과 출가한 딸에게는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위에서 언급한 옥구 제주고씨가와 밀양 창녕조씨의 사례는 결과적으로 출계한 아들과 출가한 딸의 상속분이 서로 비슷하게 분배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출계한 아들과 출가한 딸의 상속분을 비슷하게 배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한 상속분이 비슷하게 배분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족 내에서 이들의 지위가 서로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 간 균분상속이 차등 상속으로 변하게 된 이유부터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녀 간 차등 상속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행해진 연구들에 따르면 출가한 딸이 부모의 제사를 거행하지 않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에게는 다 같은 자식이지만 딸은 출가한 후에 연로한 부모

34) 1688년 曹景昌 衿給文記.

를 봉양하지 않고 또 사후에 제사도 거행하지 않기 때문에 딸에게는 아들 몫의 1/3만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³⁵⁾ 또한 『주자가례』에서도 친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과 이미 출가한 딸을 구분하고 출가한 딸은 출계한 아들과 함께 被髮·徒跣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³⁶⁾ 즉, 출가한 딸은 시부모를 위해 참취복을 입고 출계한 아들은 양부모를 위해 참취복을 입어야 하므로 친부모를 위해서는 참취복을 입지 않고 降服하게 한 것이다.³⁷⁾

이렇게 보면 앞서 옥구의 제주고씨가에서 출가한 딸·사망한 아들·출계한 아들을 함께 묶어서 차등 상속을 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외방으로 출가하여 친정의 제사를 봉행하기 어려운 딸,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여 제사를 봉행할 수 없는 아들, 그리고 다른 집안의 제사를 봉행하기 위하여 출계한 아들은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친부모의 제사를 봉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상속분을 비슷하게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예법상으로도 출가한 딸과 출계한 아들은 부모의 상례에 강복하고 부모의 제사도 봉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 내에서 위치는 같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출계자에게 주어진 상속분을 비교했을 때 17세기 후반에 정식분재가 이루어진 옥구 제주고씨의 경우는 전체 분재량의 약 10%, 18세기 전반에 정식분재가 이루어진 밀양 창녕조씨의 경우는 전체 분재량의 약 4%이므로 후대로 갈수록 그 양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두 가문의 재산상속 사례를 통해서 생가에서는 출계한 아들을 계속해서 아들로 대하는 관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옥구 제주고씨가에서는 출계한 아들에게 혼인이나 과거 급제 등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자녀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재산을 별급하였으며, 정식분재 때에도 정리를 강조하면서 상속자로 포함시켜 재산을 분급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18세기 전반

35) 1669년 金命說 前後文記.

36) 『朱子家禮』「初終」

37) 『眉叟記言』「三疏」

밀양 창녕조씨가에서도 장자와 차자를 구별하고 장자를 중심으로 친족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출계한 아들에게 재산을 분재하는 행위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계한 아들은 부모의 제사를 봉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출가한 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들보다는 적은 상속분을 책정하였으며, 부계 중심의 친족 질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상속분은 더욱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V. 출계자의 상속 비율이 딸보다 높은 유형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산상속에서 출계한 아들과 출가한 딸에게 같은 상속분을 물려준 사례들은 출계한 아들과 출가한 딸이 모두 부모의 제사를 거행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정식분재가 이루어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출계한 아들을 출가한 딸보다 우대하였던 유형도 확인되므로 이 같은 사례를 살펴본 다음 출계한 아들과 출가한 딸의 상속 비율이 같은 유형과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사례는 경상도 예안을 중심으로 세거하였던 광산김씨의 경우이다. 이들은 점필재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한 潭菴 金用石(1453~1523)이 연산군이 즉위한 후 정치적 이유로 처가가 있던 예안으로 낙향하게 되면서 그 일대에서 세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서당을 세워 후진양성에 노력한 惟一齋 金彦璣(1453~1523)의 자손들도 이에 속한다.³⁸⁾ 유일재 김언기를 시작으로 하는 가계의 계승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장자 金得珣에서 그다음 장손 金光澍(1580~1633)로 이어지는 계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김득

38) 설석규, 「有一齋 金彦璣의 學風과 學脈」, 『퇴계학과 유교문화』 30,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1, 16~17쪽.

연에서 그다음 차자 金得礪으로 그리고 손자 梅堂 金光溥(1591~1669)로 이어지는 계열에서는 김광부대에 이르러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사촌형 김광주가 자신의 셋째 아들 金承矩(1621~1676)를 김광부의 후사로 출계시키게 되었다.³⁹⁾

그리고 김승구가 출계한 뒤 1669년(현종 10) 생모 안동권씨에 의해 출계자를 포함한 4남 3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식분제가 행해졌다. 안동권씨는 분재에 앞서 차남 김승주가 비록 다른 집안의 계후자가 되었더라도 정리상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아들 金就渠·金應渠·金承渠 3명에게는 전체의 약 18~20%에 이르는 전답을 각기 나누어 주었고, 출가한 딸 3명에게는 전체의 약 8~9%에 이르는 전답을 각각 나누어 주었으며, 출계한 아들 김승구에게는 전체의 약 14%에 이르는 전답을 나누어 주었다.⁴⁰⁾ 따라서 이 경우에 아들과 딸의 상속분은 약 2배 정도 차이가 있었고 딸은 출계한 아들 몫의 약 2/3, 출계한 아들은 다른 아들 몫의 약 2/3를 받았으므로 아들, 출계한 아들, 출가한 딸의 순으로 상속분에 차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4>는 1669년(현종 10) 예안 광산김씨가의 정식분재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진 상속분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4> 1669년 예안 광산김씨가의 정식분재

번호	상속자	노비 분재량	전답 분재량	비고
1	아들 金就渠	3口	28斗落	
2	딸(사위: 柳格)	3口	13斗落	
3	아들 金應渠	3口	25斗落	
4	딸(사위: 李夔)	2口	12斗落	
5	아들 金承渠	2口	20斗落	出繼
6	딸(사위: 李邦翰)	2口	13斗落	
7	아들 金中渠	3口	29斗落	
소계		18口	140斗落	

39) 광산김씨대종증, 앞의 책, 2016, 광산김씨족보편찬회, 1326~1336쪽.

40) 1669년 金光澍 妻 權氏 分給文記.

그런데 예안 광산김씨가에서는 16세기 후반의 정식분재에서도 출계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적이 있었다. 유일재 김언기는 主簿 南世容의 딸 영양남씨와 혼인하여 1남 2녀를 낳았고 그후에도 參奉 李石弼의 딸 영천이씨와 혼인하여 2남 3녀를 낳았다. 그런데 동생 軍資監判官 金彦玲에게 후사가 없자 후처 영천이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아들 金得礪를 출계시켰다.⁴¹⁾ 그리고 1588년(선조 21) 김언기가 죽기 직전 전·후처의 자녀들을 망라하여 정식분재를 거행할 때 출계한 아들 김득의에게도 재산을 분배하였다. 이에 따라 후처의 자녀에게 주어진 재산을 살펴보면 첫째 아들 金得礪에게 전체 전답의 약 35%에 이르는 88두락을 주었고 3명의 딸에게는 출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전답의 약 18%에 이르는 43~51두락씩 주었으며 출계한 넷째 김득의에게는 전체 전답의 약 9%에 해당하는 24두락을 주었다.⁴²⁾

이렇게 볼 때 예안 광산김씨가에서는 이미 16세기 후반에 아들에게 딸보다 약 2배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주었다. 즉, 사회적으로 아들을 딸보다 더 우대하는 차등 상속이 17세기 이후에 유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가문은 그보다 먼저 이 같은 상속 관행이 정립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출계한 아들의 상속분이 딸보다 약 1/2이 적게 배분된 것은 분재기의 서문에서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자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따라서 아들을 우대하는 상속이 행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출계한 아들보다 딸의 상속분을 더 많이 책정한 이유는 출계한 아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자산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예안 광산김씨가에서는 16세기 후반부터 이미 아들을 우대하는 차등 상속이 시작되었고 출계한 아들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분배하는 관습이 자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17세기 후반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아들, 출계한 아들, 출가한 딸을 각각 구분하여

41) 광산김씨대종증, 앞의 책, 2016, 광산김씨족보편찬회, 685~668쪽.

42) 1588년 金彦璣 分給文記.

차등 분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분재기 서문에서 출계한 아들에게 분재하는 이유를 밝힐 때 16세기 후반에는 출계한 아들에게도 당연히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그 몫을 감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면, 17세기 중반에는 출계자에게는 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상 어쩔 수 없이 분급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출계한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둘러싼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사례는 영해를 중심으로 세거하였던 영양 남씨가의 경우이다. 이들은 사헌부감찰과 용담현령 등을 역임한 松亭 南須(1395~1477)가 단종 폐위 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처가가 있던 영해 현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 일대에 세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일재 김언기에게 수학한 뒤 후진양성에 힘쓰며 『四禮解義』 등을 저술한 蘭臯 南慶薰(1572~1612)의 자손들도 이에 속한다.⁴³⁾ 난고 남경훈의 가계는 南佶(1595~1654)에서 南尙周(1626~1688), 그리고 南老明(1642~1721)에서 南國蓍(1670~1727), 南履萬(1694~1751)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런데 남노명의 둘째 아들 南國藎에게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자 동생형 남국시가 그의 둘째 아들 金震萬(1697~1773)을 출계시켰다.⁴⁴⁾

그리고 그 후 1737년(영조 13) 남국시의 처 전주류씨가 3남 1녀의 자녀에게 정식분재할 때 출계한 아들 남진만에게도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첫째 아들 남이만과 셋째 아들 남태만에게는 전체 전답의 약 42~43%씩, 출계한 아들 남진만에게는 전체 전답의 약 10%, 출가한 딸에게는 전체 전답의 약 3%가 분급되었다. 이로써 출계한 아들은 아들 몫의 약 1/4, 출가한 딸은 아들 몫의 1/14을 받은 것이 되므로 아들, 출계한 아들, 출가한 딸의 순으로 차등 상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5>는 영해 영양남씨가의 정식분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43) 이창기, 「영해 원구리 영양남씨의 문중조직과 종족활동」, 『민족문화논총』 4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505~508쪽.

44) 영양남씨대종회, 『英陽南氏世譜』 2권, 1993, 영양남씨족보편찬소, 441~443쪽.

<표 5> 1737년 영해 영양남씨의 정식분재

번호	상속자	노비 분재량	전답 분재량	비고
1	아들 南履萬	3口	118.4 卜, 36斗落	
2	아들 南震萬	-	28.4 卜, 15斗落	出繼
3	아들 南泰萬	4口	119.6 卜, 38斗落	
4	딸(사위: 孫鳳喆)	1口	9.5 卜, 4斗落	
소계		8口	275.9 卜, 93斗落	

그런데 위의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영해 영양남씨의 정식분재는 출계한 아들의 상속분이 출가한 딸보다 많다는 것도 그렇지만, 아들과 딸의 상속분을 비교했을 때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큰 격차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즉, 자녀 간 차등 상속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아들과 딸의 몫이 대략 3~4배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약 10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⁴⁵⁾ 따라서 영해 영양남씨에서 이 같은 상속방식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 후반에 있었던 정식분재부터 확인된다.

우선 1668년(현종 9) 남길의 처 영해신씨가 2남 1녀의 자녀를 대상으로 재산을 분급할 때는 고려 이후 계속해서 유행한 자녀 간 균분, 즉 평균분깃의 원칙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성별에 따른 상속분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1691년(숙종 17) 남노명 등 5남 2녀의 남매가 모여 부모의 재산을 화회분집할 때는 시집간 누이들이 먼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윤회봉사에서 제외되는 것에 합의하면서 자녀 간 차등 상속이 행해지기 시작하였다.⁴⁶⁾

그리고 1720년(숙종 43) 남노명이 적자녀 2남 3녀와 서자녀 1남 1녀

45) 권내현, 「17~19세기 조선의 재산 상속 관행」, 『한국사학보』 70, 고려사학회, 2018, 294~295쪽.

46) 문숙자, 「조선후기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의 상속관행」, 『국학연구』 120, 한국국학진흥원, 2019, 129~130쪽.

에게 정식분재할 때는 그전과 같이 딸들은 본종의 제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서자녀의 상속분은 『경국대전』에 따라 적자녀와 차등을 둔다고 공언하였다.⁴⁷⁾ 그런데 이 같은 분재 원칙에도 불구하고 각 자녀에게 주어진 실제 상속분은嫡子가 전체의 67%,嫡女가 3%,庶子가 29%,庶女가 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자, 서자, 적녀, 서녀의 순으로 차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자의 몫이 적자 몫의 약 1/2인 데에 비해 적녀의 몫은 적자 몫의 약 1/25이므로 적녀와 서자간의 상속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경국대전』에서 적자녀와 서자녀의 상속 비율을 1:1/7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도 월등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영해 영양남씨가에서는 18세기 전반부터 신분상으로 우위에 있는 적녀보다 서자를 더 우대하는 등, 아들을 특히 중시하는 상속 관행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 관행의 바탕 위에 1737년(영조 13) 정식분재에서도 출가한 딸보다도 출계한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 배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그 이후에 있었던 1751년(영조 27) 남이만에 의해 행해진 정식분재에서도 딸에게는 아들 몫의 약 1/7에 해당하는 상속분이 배분되었다.⁴⁸⁾ 그리고 1784년(정조 8) 南景復의 자녀들이 모여 화회분재할 때도 딸들에게는 노비 1구씩만 배분하였고 전답의 배분에서는 아예 제외하였다.⁴⁹⁾ 따라서 영해 영양남씨가는 18세기 이후 신분의 고하, 출계의 여부보다 성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상속자를 차등하면서 철저한 아들 중심의 상속 관행을 계속해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위에서 언급한 예안 광산김씨가와 영해 영양남씨의 사례는 출가한 딸보다 출계한 아들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배분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문에서 행해진 재산 상속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다른 가문에 비해 아들 중심의 상속 관행이 이른 시기부터 강도 높게 시행되면서 출가한 딸보다 출계한 아들을 더

47) 1720년 南老明 分給文記.

48) 1751년 南履萬 分給文記.

49) 1784년 南景復 子女 和會文記.

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유형에서도 17세기 예안 광산김 씨가의 사례에서 출계한 아들이 차지하는 상속분은 약 14%, 그리고 18세기 영해 영양남씨가 사례에서 출계한 아들이 차지하는 상속분은 약 10%이므로 시기적으로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출계한 아들을 포함하는 재산상속의 사례와 유형들은 모두 처음 맺어진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변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를 여전히 아들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해석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른 가계의 후사를 잇기 위해 친아들을 출계시키는 행위는 양가에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양가에서는 친아들의 출생을 기다리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입후를 선택하였고 또 입후가 이루어진 후 바로 각종 의례를 주관할 수 있는 성인을 계후자로 들이는 것을 선호하였다.⁵⁰⁾ 그러므로 성인으로서 출계하기 전까지 이들의 양육은 생가에서 이루어졌고, 또 친아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미 부모-자식 간의 정리가 돈독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재산상속에서도 출계한 아들을 배려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7세기에 성리학적 의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출계한 아들의 의례적 위치가 모호하게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 부모에게 극진한 효를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둔 입장에서는 출계한 아들이 친부모의 상례에 그 예법을 뛰어넘어 哀毀하거나 窆葬과 祭奠의 비용을 친형제들과 똑같이 분담한 행위를 미덕으로 여겼고,⁵¹⁾ 출계한 뒤에도 생가의 친족들과 출계 전과 다른없는 호칭을 쓰며 출계 전의 친족 관계를 기준으로 상복을 입는 사례도 확인되기 때문이다.⁵²⁾

그러나 앞서 살펴본 유형들은 후대로 갈수록 모두 출계한 아들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을 넘어선 이후로 출계한 아들을 배려하는 재산상속의 사례를 찾아보기

50)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58쪽.

51) 『葛庵集』 「處士默齋金公行狀」

52) 『同春堂集』 「答李生錫成」; 『宋子大全』 「答鄭晏叔」

어렵고, 출계한 아들이 생가의 친족에게 강복하는 이유에 대한 예측적 이해가 깊어졌으며, 친족 간 호칭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사회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따라서 출계한 아들에게 재산을 분재하였던 행위는 입후가 유행하기 시작하던 시기와 맞물려 특정 시기에 생긴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조선 초기 재산상속에 관한 논의는 노비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시작되었고 그간에 논의된 사항들이 『경국대전』 「사천」조에 수록되면서 상속제 운용의 원칙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재산상속의 내용은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자녀의 신분적 위치,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일정한 차등을 두었으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신분에 속한 자녀에게 같은 몫을 분배하는 자녀 간 균분상속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방식은 이미 고려 때부터 이어져 온 오랜 관행이면서 상속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이해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면 가문들의 상황에 따라 그 정도와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딸보다 아들을 우대하는 자녀 간 차등 상속으로 바뀌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점차 대세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국초부터 『주자가례』에 따른 사회질서의 정립을 강조하였던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였을 뿐 아니라, 조상의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구체적 의례 절차가 담긴 제례서가 편찬되고 제사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의 봉사재산으로 책정한 것과도 큰 관련이 있다. 즉, 일상에서 제사의 실천이 중요해짐에 따라 제사를 봉행할 아들을 딸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상속분에 차등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53) 『大山集』 「答柳叔文 庚寅」; 『梅山集』 「答李子岡」

그리고 이 같은 경향 속에 가계 계승의 대안으로써 입후도 함께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입후를 통해 새로운 아들이 된 계후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행위도 있었지만, 다른 가문의 후사를 잇기 위해 출계한 아들에게도 생가가 재산을 상속하는 사례들도 존재하였다. 이에 출계한 아들에게 일정한 몫을 정식분재한 사례들을 모아 정리하면 첫째 출계한 아들과 출가한 딸의 상속 비율이 같은 유형과 둘째 출계한 아들의 상속 비율이 출가한 딸보다 높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첫째 유형에 관한 사례는 17세기 후반 옥구의 제주고씨가와 18세기 전반 밀양의 창녕조씨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출계한 아들과 출가한 딸에게 비슷한 몫을 분재한 것은 이들의 위치가 가족 내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17세기에 이르러 자녀 간 차등 상속이 생겨난 이유는 다른 지역으로 출가한 딸이 더 이상 제사를 봉행하지 않게 되면서부터인데, 출계한 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가문의 제사를 봉행하기 위해 출계하여 생가의 제사를 봉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계한 뒤에 아들을 아들로써 대우하면서도 정식분재 때에는 제사를 봉행하는 다른 아들과 구분하고 그와 같은 위치에 놓인 출가한 딸과 같은 상속분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 둘째 유형에 관한 사례는 17세기 후반 예안의 광산김씨가와 18세기 전반 영해의 영양남씨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출가한 딸보다 출계한 아들에게 더 많은 몫을 분재한 것은 딸보다 아들을 중시하는 관념이 일찍부터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즉, 예안의 광산김씨가는 이미 16세기부터 장자 중심의 상속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고 영해의 영양남씨기도 신분보다도 성별 중심의 상속 관행이 확립되어 적녀보다 서자에게 더 많은 몫을 분재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아들을 중시하는 강도가 다른 가문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정식분재에서 출계한 아들에게 일정한 몫을 상속하는 행위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해도 그를 여전히 아들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찾아보면 출

계의 시점이 대체로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친 부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면서 부모-자식 간의 정리가 돈독하게 형성되었으므로 재산상속에서도 출계한 아들을 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입후가 유행한 지 얼마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출계한 아들의 예학적 위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즉, 출계한 후에도 친부모의 상례에 친형제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며 출계한 후에도 생가의 친족들과 그전과 다름없는 호칭을 쓰고 출계 전의 관계를 기준으로 상복을 입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후대로 갈수록 출계한 아들에게 상속한 재산의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18세기 후반 이후 출계한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출계한 아들도 출계로 인한 친족 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모습도 확인된다. 따라서 출계한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행위는 입후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던 시기에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05월 1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5월 27일부터 0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葛庵集』, 『大山集』, 『同春堂集』, 『梅山集』, 『眉叟記言』, 『宋子大全』, 『朱子家禮』, 『太祖實錄』, 『太宗實錄』

1588년 金彦璣 分給文記, 1648년 高傳選 別給文記, 1651년 曹轆 妻 宋氏 分給都文記, 1663년 高傳選 妻 鄭氏 分給文記, 1669년 金命說 前後文記, 1676년 高斗煌 紅牌, 1676년 高傳選 妻 鄭氏 別給文記, 1688년 曹景昌 給給文記, 1720년 南老明 分給文記, 1722년 曹世周 分給文記, 1751년 南履萬 分給文記, 1784년 南景復 子女 和會文記, 1669년 金光澍 妻 權氏 分給文記

고민정, 「17-18세기 兄亡弟及의 사례를 통해 본 가계계승의 실현과정」, 『사학연구』 140, 한국사학회, 2020, 255~288쪽.

고민정,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 『정신문화연구』 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175~211쪽.

고민정,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사학연구』 130, 한국사학회, 2018, 137~172쪽.

고민정, 「立後文記로 보는 18~19세기의 입후 양상」, 『태동고전연구』 51, 태동고전연구소, 2023, 263~289쪽.

고민정, 「조선 후기 사족 家系의 계승방식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55, 한국고문서학회, 197~198쪽.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광산김씨대종중, 『光山金氏平章大譜』 3권, 광산김씨족보편찬회, 2016.

권내현, 「17~19세기 조선의 재산 상속 관행」, 『한국사학보』 70, 고려사학회, 2018, 294~295쪽.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58쪽.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201~232쪽.

- 김경숙, 「조선후기 光州 全義李氏家の 재산상속」, 『사학연구』 99, 2010, 한국사학회, 121~124쪽.
- 김두현, 「제주 고씨의 옥구 입거와 이후의 거주지 이동」, 『전북사학』 36, 전북사학회, 2010, 40~53쪽.
- 김두현,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 김순한 등, 「16~18세기 寧海 新安朱氏 朱雲가문의 상속 및 봉사의식과 그 변화」, 『민족문화논총』 6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49쪽.
- 김용만, 「朝鮮時代 均分相續制에 關한 一研究」, 『대구사학』 23, 대구사학회, 1983, 4~6쪽.
- 김윤정, 「조선평기 가묘제와 여성제례의 변화」, 『국학연구』 14, 한국국학진흥원, 2009, 457~461쪽.
- 문숙자, 「조선후기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의 상속관행」, 『국학연구』 120, 한국국학진흥원, 2019, 129~130쪽.
- 문숙자, 『조선평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 박경, 「罷繼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 『장서각』 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78~111쪽.
- 박경, 『조선평 전기 입양과 가족제도』, 해안, 2011.
- 박진훈, 「麗末鮮初 奴婢政策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배상현, 「『朱子家禮』와 그 朝鮮에서의 行用過程」, 『동방학지』 7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1, 242~248쪽.
- 설석규, 「有一齋 金彦璣의 學風과 學脈」, 『퇴계학과 유교문화』 30,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1, 16~17쪽.
- 영양남씨대중회, 『英陽南氏世譜』, 영양남씨족보편찬소, 1993.
- 이창기, 「영해 원구리 영양남씨의 문중조직과 종족활동」, 『민족문화논총』 4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505~508쪽.
- 전경목, 「分財記를 통해서 본 分財와 奉祀 慣行의 변천」, 『고문서연구』 22, 2003, 한국고문서학회, 258쪽.
- 정경희, 「朝鮮前期 禮制·禮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정공식, 「전기자료에 나타난 16세기 양자의 특징」, 『국제지역연구』 12-4,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09쪽.

정수환, 「조선후기 분재와 가정경영 그리고 지역사회」,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781~782쪽.

한상우, 「조선후기 양반층의 立後 양상과 전략적 繼子 선택」,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287~325쪽.

허원영, 「한말 한 중가의 立後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 151~186쪽.

Abstract

A Study on the Property Inheritance System and the Position of Adopted Son during the 17~18th Centuries

Ko, Min-jung

This study has analyzed Records of Property Inheritance that were prepared during the 17~18th centuries to investigate the case where the adopted son who would succeed to the family lineage inherited property.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er has largely classified it into two types. One type is the case in which the adopted son from the same clan and biological daughter inherited same portion of property. Another type is the case in which the adopted son inherited a larger portion of property than biological daughter did.

In the first case of the former type, it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position from the adopted son of the same clan and biological daughter. Here, the adopted son and the biological wedded daughter have one thing in common that both were not allowed to hold a rite for biological parents. Accordingly, the portion of property that they would take over was equally earmarked.

In the second case of the latter type, it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 presence of s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one of daughter. Here, this case put heavier weight on the gender of boy, irrespective of rank and blood type. Accordingly, the portion of property that son would take over was earmarked much more.

Yet, the case where property was bequeathed to adopted son means that the adopted son had already cultivated the acquaintance of the adopted parents, before he was adopted and that the duties of the

adopted son were not clearly defined.

keywords :

Property Inheritance, Adoption, Differential, Women, Records of Property Inheritance

